

항공업계, SAF 도입 본격화... 운임인상 효과 이목집중

(지속가능항공유)

유럽·美 등 글로벌 의무화 추세
일반유 가격 2~3배... 운임 영향
업계·정부 “급격한 변화 없을 것”

지속가능항공유(SAF)의 도입으로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월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반 항공유보다 3배 비싼 SAF의 도입이 공식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항공권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지속가능항공유 확산 전략’을 발표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증한 국산 SAF의 상용 운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항공 ▲티웨이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는 2024년 하반기 국제선 일부 노선에 주 1회 SAF 1% 혼합 급유 방식으로 운항하기로 했다.

SAF는 원가가 일반 항공유보다 2배 비싸고, 공급 가격 또한 2.5~3배 수준이다. SAF는 기존 항공유와 달리 폐식용



대한항공은 지난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SAF 상용 운항 취항 행사’를 열고 국산 SAF 적용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다. 사진은 좌측부터 오중훈 SK에너지 사장,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스오일 대표이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우측 두번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유·식물성 유지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만큼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선 해당 원료를 가공할 별도의 대량생산 체계가 필요하다. 연료비는 항공사의 매출원가에서 30~45%를 차지하는 만큼 항공권 가격에 중요한 변수다. 특히 저렴한 항공권 가격으로 경쟁하던 저비용항공사(LCC)는 항공권 가격을 올릴 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저비용 항공사는

‘가성비’ 이미지가 강했기에, 운임 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감이 크다.

소비자와 항공사 모두 부담은 크지만 도입을 미룰 수는 없다. 유럽은 2025년부터 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최소 2%의 SAF 혼합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미국 또한 2050년까지 미국 항공유 수요의 100%를 SAF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도 SAF 공급 가능 공항 시설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세계 곳곳을 연결하는 항공산업 특성상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세계적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항공권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될 가능성은 작다. 국토교통부가 상한선을 두고 항공운임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항공권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항공권 가격 인상을 대비해 SAF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유사와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 SAF 상용운항 개시 ▲2026년 민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 SAF 사용 촉진 ▲2027년 혼합 의무화 제도 도입 등 순차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SAF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 등에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SA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항공사들도 자사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SAF 도입에 나설 방침이다. 에어부산은 2025년 1분기 중 SAF 상용운항에 나설 계획이며, 현재는 SAF 공급을 위한 계약 협상 중이다. 에어서울은 의무 기간이 아닌 만큼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SAF 혼합 급유가 의무화되는 2027년, 모든 항공편에 SAF 1% 혼합급유를 시행하면 약 16만톤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성 기자 iunmids@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사람 중심 스마트시티 청사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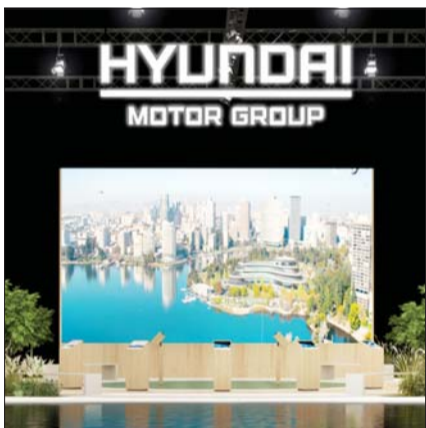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첫 참가
개인형 모빌리티 ‘DICE’ 등 전시

현대차그룹이 그룹 역량을 한데 모아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청사진을 제시한다.

현대차그룹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열리는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2024 (World Smart City Expo Korea 2024, WSC E)’에 처음 참가해,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WSC E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시작돼 올해로 8회째 열린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최신 기술, 정책 및 솔루션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대 글로벌 엑스포다.

지난해에는 총 70개국 320개사가 참가해 스마트 인프라, 에너지 효율화 등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 현대차그룹 부스 조감도 /현대차그룹

미래 도시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했다.

올해는 ‘더 나은 삶이 여기에(Better Life is Here)’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체험 및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WSC E에서 공간, 모빌리티, 에너지 등 도시의 3가지 핵심 영역에 기술이 조화롭게 연결돼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약 900㎡(273평) 규모의 전시관을 ▲교통 ▲물류, 로보틱스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세 구역으로 나눠 현대차그룹이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교통존에는 개인형 모빌리티 ‘DICE(Digital Curated Experience)’, 차세대 기체 ‘S-A2’, ‘SPACE-Mobility’, ‘셔클’ 등이 전시됐다. 개인형 모빌리티 ‘DICE’는 AI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물류, 로보틱스존에는 물류 모빌리티 ‘CITY POD’, ‘주차 로봇(Parking Robot)’, ‘이지 스왑(Easy Swap)’ 등이 전시됐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IFA서 최고 효율 가전 뽐낸다

ErP 에너지등급 이상 제품 전시

LG전자가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갖춘 생활가전 신제품을 유럽에 공개한다.

LG전자는 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서 유럽의 ErP 최고 에너지등급 기준보다 효율을 높인 고효율 가전 신제품을 전시한다.

LG 드럼 세탁기 신제품은 유럽의 가장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인 A보다 55% 효율이 더 높다. 단적으로 이 제품에 탑재된 AIDD모터는 세탁물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최적화된 작동으로 에너지 소비와 옷감 손상을 줄여준다.

건조기 신제품은 에너지 효율 등급 ‘A+++’보다도 효율을 26% 더 높여 유럽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

량이 가장 적다. AI 건조 모드는 세탁물 종류와 습도에 맞게 설정해 건조 시간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LG 냉장고 신제품은 최고 에너지 등급인 A보다 25% 효율이 뛰어나다. 식기세척기도 최고 에너지 등급인 A보다 20% 효율을 더 높였다. 새롭게 선보인 LG 인스타뷰 AI 오브는 에너지 효율 등급 A++를 충족한다.

특히 LG전자는 IFA 2024에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하는 ‘스마트 그린 홈’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를 통해 고효율 가전을 제어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는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다.

류재철 LG전자 사장은 “에너지 고효율 가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

SK하이닉스

하반기 신입·경력사원 채용

SK하이닉스가 하반기 신입·경력 사원을 채용한다.

SK하이닉스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과 반도체 유관 경력 2~4년차 대상의 ‘주니어 탠런트’ 지원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자는 SK 종합역량검사(SKCT)와 면접, 건강검진 등을 거쳐 내년 1~2월 중 입사한다.

SK하이닉스는 오는 10일까지 서울대와 포항공대 등 5개 대학에서 석박사 대상 채용 행사인 ‘테크 데이 2024’를 진행하며 별도로 인재 확보에도 나선다.

/김서현 기자

삼성전자, 범용 강판 ‘UL솔루션즈’ 인증

포스코 공동개발... 냉장고 등 적용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함께 재생 소재 함량을 높인 범용 강판을 공동 개발해 UL 솔루션즈로부터 ECV 인증을 받았다

ECV 인증은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률이나 유해 물질 함유율 등 제품의 환경성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부여하는 환경마크다.

이번 범용 강판은 포스코의 전로 공정에서 재활용 소재를 다량 용해하는 기술을 활용해 재생 소재 함유율을 UL 솔루션즈가 인증하는 12%까지

높였다. 전로 공정은 고로에서 만들어진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범용 강판은 유리질 유약을 도포하여 고온에서 구워내는 범용 코팅에 적합한 강판으로, 조리기기 내부 조리실 등에 사용된다. 앞으로 국내에 판매되는 빌트인 오븐·쿠커 오븐·전자레인지 내부에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포스코와의 협업을 확대해 내년부터 냉장고 도어·세탁기 세탁통·식기세척기 내부 등에 재생 소재가 함유된 스테인리스 강판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기아

‘더 2025 쏘렌토’ 출시

대한민국 대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렌토가 연식변경을 통해 상품 경쟁을 한층 강화했다.

기아는 쏘렌토의 연식 변경 모델인 ‘더 2025 쏘렌토’를 2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더 2025 쏘렌토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고급 안전·편의 사양을 확대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신규 사양인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햅틱) 및 선바이저 LED 조명을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하고, 고객 선호도가 높은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를 엔트리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 기본화해 상품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또 기존에 선택 사양으로 운영되던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타입 아웃사



기아 더 2025 쏘렌토 (위)전측면 (아래)실내

이드 도어핸들 ▲지문 인증 시스템 등 첨단 편의 사양을 시그니처 트림부터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양성운 기자